

남북관계 긴장감 최고조 지자체 협력기금 어찌나

대북 협력사업 전면 중단
광주시 66억·전남도 68억원
집행 올스톱 수년째 '낮잠'
조례 개정 활용처 다각화 모색

최근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광주 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활용처를 조례 개정을 통해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대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돼 이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가 갈수록 접어든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대북협력사업은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집행한 이후 잠들어 있는 상태.

전남도의 경우도 지난 2021년 이뤄진 '대북수해 구호 및 영양 증진'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이 '올스톱'됐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광역단체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그동안 대북협력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만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는 기금 활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주시가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66억원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여러 협력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냉전 체계로 치달으면서 관

련 사업이 줄어들고, 2020년부터 기금 조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기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억여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6억여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인 조성 규모는 35억 1700만원(2018년)→35억 5900만원(2019년)→46억 4900만원(2020년)→56억 8800만원(2021년)→62억 4600만원(2022년)→ 68억 9000만원(2023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데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시의 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21일 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추가해 기금 활용 폭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남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나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 개정 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북 관계 경색 장기화로 기금 활용 방안이 필요했다"며 "기금 활용 범위를 '남북 교류'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으로 확대한 시·도가 늘어 광주시도 조례 입법예고 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예향 40년' 호남인 삶에 문화를 심다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아카데미 가을음악회
2024. 10. 22.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예향 아카이브 & 남도오딧세이' 행사가 22일 오후 광주 남구 어반브룩 연회장에서 열렸다. 김여송(왼쪽에서 두번째)광주일보 회장이 참석해 내외빈들과 기념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김여송 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 김윤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장, 우제길 화백.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기념식·전시회 열려 김여송 회장 "문화예술 알찬 결실 맺도록 텃밭 가꾸겠다"

"호남의 근현대사는 광주일보의 역사이며, 광주일보의 역사는 '예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1984년 10월 창간 이후 '예향'은 IMF 외환위기와 종이출판 쇠퇴 등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정신, 호남인들의 삶 속에 깃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잡지인 광주일보 자매 월간 '예향'이 창간 4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

22일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임암동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 우

제길·최영훈 화백 등이 참석해 예향 창간 40주년을 축하했다.

김여송 회장은 환영사에서 "'예향'은 출판업에 대한 허기가 매우 까다로웠던 군사정권 시절에 문화예술 잡지 허가를 받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광주일보와 '예향'은 호남의 문화 예술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문화 텃밭'을 가꾸는 것은 물론 현장의 소식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지호·우제길·최영훈·황영성 화백 등 예향 표지를 장식했던 작품과 '예향' 대표 콘텐츠인 '남도 오딧세이' 아카이브 전시회 관람에 이어 기념식, 조동수 전 주필 등 '예향' 40주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패·공로패 전달, 케이크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40년 전 '예향' 창간호가 발행됐을 때가 기억이 나 감회가 새롭다"며 "지역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담은 품격 높은 잡지가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기를 바라며 전남도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갑 부시장은 "전시된 '예향' 표지 작품 하나 하나를 둘러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예향'을 통해 활동했던 남도의 예술가들이 있어 지금의 문화 광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도 '예향'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도 이어졌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재즈피아니스트 앤디킴, 첼리스트 이수창의 연주로 10월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KS 서스펜디드 KIA·삼성 누가 유리할까 ▶2면

독자와 함께한 예향 40주년·화보 ▶4·5면

광주 경찰청 국감, 낮은 체감안전도 질타 ▶8면

OK! Now Jeonnam

제4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2024 10.25.~10.26.

전남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야외무대) 일원 주소 : 전남 나주시 배뫼3길

☑ **공인**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버스킹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배리어프리 공감콘서트 랜덤플레이댄스

☑ **체험·전시** 평생학습 주제관 대학 체험관 시·군 체험관 출연기관 체험관 도교육청 체험관 성인문해전시로드 나주시 체험관

박경림
토크콘서트

댄스팀 울플러
축하공연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